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2 Serial No.116 2012. 04
http://dx.doi.org/10.7466/JKHMA.2012.30.2.101

초등학생 고학년 남아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l Behaviors, and Marital Conflict on Boys' Aggression in Korean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시간강사 전 주 람**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김 순 옥***
Dept. of Child and Family, Changwon National Univ.
Lecturer : Jun, Joo-Ram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 Kim, Soon-Ok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s of boys' self-control, their parents' behaviors and marital conflict on boys' aggression. Subtypes of aggression in the present research consist of dimensions of the functions and forms (proactive·overt, proactive·relational, reactive·overt, reactive·relationa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37 boy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questionnaires were derived and modified from Lee Hong (2009) for boys' aggression, from Ju So Young and Lee Yang Hee (2008) for boys' self-control, from Jun Joo Ram (2008) and Heo Seung Yeon (2009) for maternal behaviors and from Kang Na Jung (2008) for marital conflict.

In order to grasp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Also, Pearson's correlation was applied to the relationships amomg boys' self-control, marital behaviors and marital conflict on boys' aggression. Lastly, the variables that can predict boys' aggression were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SPSS 19.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is research showed that this model fit well for boys. To summarize the important results, what is interesting in the present study is the effect of the mother's role in rearing their sons. It was found that mothers' criticism, negative behaviors, and excessive interference can cause boys' high level of aggressiveness. Also, having parents who fight frequently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boys' relational aggression. A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mother's support influenced boys' reactive·overt aggression. Lastly, boys' self-control was highly associated with boys' proactive·relational aggression.

This research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boys' aggression' subtypes. To that end, the current results suggest that the dimensions of the functions and forms may be a useful tool in an effort to inform developmental theory and intervention. Also, this research may provide guidance for the resolution of problems caused by boys' aggression. Lastly, it was found that self- control training and parental education programs might prove beneficial for helping aggressive boys to overcome their aggressive impulses.

▲주요어(Key Words) : 공격성(aggression), 자기통제력(self-control), 부모의 양육행동(parental behaviors), 부모간 갈등(marital conflict)

* 본 논문은 주저자인 전주람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전주람 (E-mail : ramidream@skku.edu)
*** 교신저자 : 김순옥 (E-mail : sokim@skku.edu)

Ⅰ. 서 론

공격성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속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공격성의 과도한 표출은 타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출, 비행,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위의 공격성을 지닌 인간은 집단의 질서와 조화를 해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보고에 의하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515개교, 중학교 276개교, 고등학교 234개교 약 6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폭력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학생은 1만 6,103명(24.9%)이었으며, 5,252명(8.1%)은 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세계일보, 2011).

이처럼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학자들은 인간의 공격 행동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가족, 학교, 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에서 공격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Deacon and Firebaugh (1988)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근접환경과 광역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두 영역은 모두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접환경은 아동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더 가깝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특히 근접환경 중 아동 자신과 부모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변인이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과 부모 변인에 대한 탐색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나, 과연 아동과 부모 중 어떠한 요인이 영향력이 더 높은지 공격성의 하위유형별로 자세히 다루어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공격성을 하위유형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변인들의 중요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격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공격성을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단일 현상으로 정의하고 합일된 개념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기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공격성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Lee, 2009). 이와 같이 공격성은 개인에 따라 유발 원인, 표출 이유, 지속 기간 및 상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개념이다.

공격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관점 중 사회학습 관점을 주장한 학자들 중 Bandura(1977)에 의하면, 공격적 행동은 관찰이나 모방을 통하여 학습되며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Seo(2011)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된 국내의 공격성 관련 논문 119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외현적 공격성에서 남아가 우세함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남아의 공격 행동이 여아보다 허용적인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남아는 여아보다 확실히 외현적 공격 행동을 보이기 쉽다고 생각된다. 부모, 교사 및 또래 등은 여아보다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해 더 허용적인 편이며, 여아에게는 공격 행동에 제한을 두는 등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므로 이러한 차별화된 반응이 남아의 공격행동을 강화하며 여아의 공격행동을 다소 낮추게 되는 것이다. Underwood(2003)는 문화적 배경은 남아가 외현적 공격 행동을 쉽게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아의 공격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을 예측하는 여러 변인 중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다(Jang, 2008; Doh & Lee, 2011). 아동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그들은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Lee & Lee, 2007), 자기통제력을 갖춘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표출되기 쉽다(Jang, 2008). 반면 아동이 충분한 자기통제력을 갖춘 경우 공격성이 내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공격성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중요한 내적 요소이다(Tangnet et al., 2004; Thomas et al., 2011).

그리고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 환경은 가정이며,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중요하다(Lee & Moon, 2007).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remblay, 2000).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의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데, 부모가 거부적, 제제적,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Kim & Kim, 2001; Lee & Lee, 2007). 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 중 하나인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Jeong, Lee, & Cheon, 2010), 공격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Aken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환경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여러 문제 행동 중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Kim & Doh, 2001; Cheong & Lee, 2004; Lee & Moon, 2007). 많은 학자들은 부부간의 관계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즉, 부모간 갈등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중요한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격성에 대한 이 세 변인들의 상

대적 영향력을 하위유형별로 자세히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다.

국외의 경우 독일 Little et al.(2003)는 처음으로 기능・형태 차원의 공격성 측정을 시도하였고 국외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능・형태 차원의 공격성이란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한 문항 내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으로 주도・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을 말한다.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의 공격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은 아동의 공격성 하위유형에 대한 기술을 더하고, 발달적 이론과 개입을 위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Little et al., 2003; Marsee & Frick, 2007; Ostrov & Crick, 2007). 예를 들면,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능・형태 차원의 공격성 척도를 사용한 결과, 주도・관계적 공격성은 사회 부적응, 반응・관계적 공격성은 학생-교사간 갈등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Marsee and Frick(2007)에 따르면 주도・외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들은 공격행동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기대하며 타인에게 싸움을 먼저 걸거나 괴롭히기, 놀리기 등의 공격행동을 하게 되므로 가출, 비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도・관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들은 냉담한 정서 결여 특성과 공격행동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와 높은 연관을 갖는다. 그리고 반응・관계적 공격성을 지닌 경우, 불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rsee, Weems, & Taylor, 2008),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분노 특성은 반응・관계적 공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rsee & Frick, 2007). 이처럼 공격성을 기능・형태 차원으로 탐색하는 것은 다차원적인 공격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적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기능차원과 형태 차원을 동시에 탐색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기술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하나로 합쳐 기능・형태 차원으로 측정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Ostrov & Crick, 2007; Ostrov & Houston, 2008; Marsee et al., 2011).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공격성의 형태 차원 또는 기능 차원 공격성 두 가지 중 한 차원에 대한 연구가 많고(Park & Park, 2002; Jun, 2008; Lee, 2010; Seo, 2011), 기능・형태 차원을 동시에 탐색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공격성 하위유형을 기능・형태 차원으로 나누어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아동의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남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의 개념 및 유형

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은 유발 원인, 표출 이유, 지속 기간 및 상태 등이 개인마다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Kang (1997)은 공격성을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사물에 대한 가해 행위로 정의하였고, Yoon(2007)은 행위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거나 재물의 손실이나 파괴를 일으키고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동으로 공격성을 정의하였다. 또한 위키백과(2011)에 의하면, 공격성이란 같은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혹은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Eron(1980)은 공격성에 의도성을 포함하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나게 하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공격성의 의도성을 추론하지 않고 관찰 가능한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실수 또는 우연히 타인을 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까지도 공격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공격성의 관찰 가능한 행위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학자들은 공격성의 표출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처럼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공격성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은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수 또는 우연히 일어나게 된 공격성까지 포함하게 되어 학자들은 공격성의 의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accoby and Jacklin(1975)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성을 포함하여 공격성을 정의하였고, Aeonson(1980) 역시 공격성이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Han, 2008 재인용).

그리고 Berkowitz and Donnerstein(1981)는 공격행동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표를 지닌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Kazdin (2000)은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ushman and Huesmann(2001)은 공격성을 사람이나 사물을 정복하거나 이기기 위하여 물리적 또는 언어적으로 과격하게 표현되는 행동 뿐 아니라 분노를 촉발하는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였고, Orpinas and Frankowski(2001)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의도 및 동기,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정서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Park, 2011 재인용). 그리고 Ferguson(2009)는 공격행동을 다른

우위에 있는 동물에 대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성에 의도를 포함하는 학자들은 우연하게 발생된 피해는 의도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격성이라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기와 의도를 고려한 정의는 관찰자가 행위자의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부터 동기를 추론해내야 하므로 공격성 판단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종합하면 공격성은 공격 행위자의 의도성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공격성에 의도성을 포함하여 정의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이란 아동이 구체적인 보상을 얻기 위하거나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물건 또는 타인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관계에 손상을 주려는 의도 및 행위로 정의한다.

2) 공격성의 유형

공격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공격성을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나, 단일 현상으로 정의하고 합일된 개념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의 기제와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Lee, 2009). 이처럼 공격성은 개인에 따라 유발 원인, 표출 이유, 지속 기간 및 상태 등이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차원적인 개념인 것으로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Frodi, Macaulay, and Thome(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및 간접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상대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직접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즉, 공격성을 유발시킨 대상을 공격의 표적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적 공격성은 유발시킨 사람 이외의 다른 대상을 향하거나 일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Quay(1986)는 심리측정적 연구의 중심이 되어온 외현적 공격성과 내현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은 신체적 폭력, 따돌림, 무기를 사용한 적대적 행동, 규칙이나 권위 대상에의 반항 행동을 포함하는 행위이고, 내현적 공격성은 절도, 방화, 등교 거부, 가출 등의 은밀하며 비밀리에 행해지는 모든 공격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지행동주의 학파인 Dodge and Coie(1987)는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한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 행위가 강화에 의해 통제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부분의 공격행동은 예상되는 이익에 의해 유발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공격 행위자가 공격 행동을 하는 것은 특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발생되는 행동으로 목표했던 어떤 물건이나 혜택 등의 유익을 얻게 되면 그 행위는 더욱 강화된다. 또한 좌절-공격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한 위협이나 도발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보복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격성의 보복적인 특성은 공격성의 정서 유형인 분노와 관련이 있다(Crick & Dodge, 1996; Schwartz et al., 1998).

이처럼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사회정보처리의 다른 인지적 기제에 의해 공격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도적 공격성은 공격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높은 확신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공격행동을 시도한다.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상대방에 대한 보복 혹은 방어 행동으로 공격행동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Crick & Dodge, 1996).

Dodge and Coie(1987)는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네 집단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주도적 공격성을 지닌 소년들은 인지적 왜곡의 단서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소년들은 동료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으며, 애매한 도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공격적으로 과잉 반응하였다. 또한 Crick and Dodge(1996)의 연구에서도 반응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아동들이 비공격적인 아동들보다 또래에 대한 적대적 귀인 편파를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사회정보처리에서의 차이를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유력한 두 이론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공격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각 이론의 제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복잡한 공격 행동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후 여아가 보이는 독특한 공격성의 분류로 또래 간의 우정을 해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타인의 또래 관계나 소속감과 같은 감정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이 언급되었다. Archer and Coyne(2005)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은 학자에 따라 간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공격성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집단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무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것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성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ostelnik et al.(2002)은 공격성의 유형을 우연적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 우연적 공격성은 어떤 의도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게임을 하다가 의도 없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표현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신체적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또한 도구적 공격성은 목표를 갖고 사물이나 영역, 권리를 얻기 위해 신체적 분쟁에서 누군가를 해치게 될 때 나타나는 행동이며, 적대적 공격성은 고의적 특성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격성은 공격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공격성과 아동의 심리행동적 특성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격성은 주로 파괴적 교실 행동, 싸움의 시작, 비행(Lee, 2009), 자기애(Xu & Zhang, 2008)와 높은 관련이 있고, 여아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과 관련이 있다(Han, 2008). 반면, 주도적 공격성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몇몇 연구를 보면, 주도적 공격성의 도구적 속성은 자원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친구들 사이에서 멋진 행위로 여겨질 수 있고(Xu & Zhang, 2008), 리더쉽, 유머감각과 관련되어 있다(Poulin & Boivin, 2000). 그리고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은 타인의 의도를 해석하는 기술이 빈약하여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쉬우며, 또래가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Lee, 2009).

또한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Vitaro et al., 2002), 고독감, 사회적 불안, 낮은 상호호혜적 관계, 낮은 정서 조절(Xu & Zhang, 2008), 불안, 분열형, 낮은 대인관계의 질(Seah & Ang, 2008)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은 정서조절 능력이 떨어져 불만이나 기분 나쁜 일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보고되었다(Han, 2008; Marsee et al., 2008). 요약하면 주도적 공격성은 내현화 문제보다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고(Vitaro et al., 2002),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은 우울, 불안 및 신체화와 같은 내현화 문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Seah & Ang, 2008; Xu & Zhang, 2008).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치료적 개입과 관련하여, Vitiello and Stoff(1997)는 주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들은 행동 치료에 더 잘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 아동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손상을 입히기보다 특정한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행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환경적 강화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에 따라 그들의 품행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반면,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들은 자기 통제 능력의 부족과 낮은 좌절 인내력, 분노와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지녔기 때문에 약물학적 접근과 심리사회적 접근 두 가지 개입이 치료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Coie and Koeppl(1990)의 프로그램 개입 제안으로 주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는 아동 환경에 강화 유관성을 변화시켜, 공격 행동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공격 수행에 대한 효능감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하였다. 그리고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 개입으로 분노 통제를 위해 분노를 나타내는 신체적 단서 지각하기, 갈등 상황에서 자기통제력 사용하기 및 문제 해결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적합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외현적 공격성은 비행과 높은 연관성이 있고,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사회 평가 불안)은 관계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Loukas et al., 2005). 또한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아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호감 및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공격행동 한다고 밝혀졌다(Lee, 2009).

Little et al.(2003)에 의해 처음으로 기능・형태 차원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1,723명의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적절한 내적 합치도, 모델 적합도, 타당도를 보여 공격성을 4가지 하위유형으로 측정하는데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합침으로써 공격성을 다각도로 분류하는데 기여하였다. 기능 차원은 성취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는 주도적 공격성과 공격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적이며 위협에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반응적 공격성을 말하며, 형태 차원은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를 손상하려는 위협인 관계적 공격성을 말한다. 그리고 기능・형태 차원은 기능적 공격성과 형태적 공격성을 한 문항내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으로 주도・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을 의미한다.

이후 Marsee et al.(2007)은 Little et al.(2003)에 의해 구성된 척도가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표현이 각각 한 가지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을 표현하는 어휘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서로 상응하는 문항으로 수정해 또래 갈등 척도를 개발하고 위험 상태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Han(2008)에 따르면, 이 척도는 기능 차원인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형태 차원으로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을 함께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성에 대한 효과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기술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외학자들은 공격성의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하나로 합쳐 측정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이론과 개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Little et al., 2003; Marsee & Frick, 2007; Ostrov & Crick, 2007).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기능・형태 차원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하위유형은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주도・외현적 공격성,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 손상을 가하려고 위협하는 주도・관계적 공격성,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반응・외현적 공격성,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관계에 대해 손상을 가하려고 위협하는 반응・관계적 공격성 네 가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을 설명할 때 아동의 심리행동적 변인으로 통제력은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Jang, 2008).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Kim(2001)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개인의 중요한 내적 변인은 자기통제력이라 하였으며, Lee(2001)는 자기통제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로서, 환경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교육적 상황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Hah(2003)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고, 초등학생 6학년의 경우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개인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유동성 변인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ee and Lee(2007)는 자아통제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이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Shaffer(2000)에 따르면, 자아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인지나 사고를 사용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행하며,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거나 유보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Tangney et al.(2004)는 자기통제력이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을 억제하거나 행동, 사고 및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Jun(2007)은 자기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라 하였으며, 남아의 경우 우울, 공격성을 예측하며, 여아의 경우 공격성을 예측했다. 그리고 Doh and Lee(2011)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며,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은 자아통제 수준은 공격성, 비행, 폭력 및 범죄행동 등과 관련되며(Avakame, 1998), 많은 살인자들과 폭행자들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기보다 충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azelwood & Warren, 2000). 또한 Thomas et al.(2011)은 공격성 발생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통제력 조절의 어려움이라고 하였으며, 자기 조절 훈련을 통해 공격성의 충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격성과 뇌와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를 보면, 공격적인 개인은 종종 통제와 정서를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결핍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Davidson, Putnam, & Larson, 2000; Denson et al., 2011), 전두엽 손상은 공격성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졌다(Grafman et al., 1996).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란 아동은 자신이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남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Park & Park, 2002). Patterson(1982)의 남아의 외현적 공격성과 부모의 부정적인 훈육방법 간의 관계에 대해 강압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 이론의 주장은 부모가 신체적인 처벌, 비일관적 훈육과 강화, 낮은 수준의 감시와 감독, 그리고 낮은 수준의 긍정적인 부모 관여를 통해서 외현적인 공격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부모는 남아의 부정적인 행동에 일관적인 훈육을 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강화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아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Kim, 2006 재인용).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 중에서도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Lim(2000)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의 정서조절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반면 어머니가 과보호적인 양육행동과 지시・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은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이 더 거부적이며(Kim & Kim, 2005), 부모가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Kim & Doh, 2001; Aken et al., 2007). 또한 부모가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통제를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 수준은 높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Kim & Doh, 2001). 또한 거부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자녀는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되며, 또한 부모에게 거부, 무시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반사회적이고 공격적 행동이 높았다(Lee, 2004).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그 중에서도 제재・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발생시키는 요

소로 볼 수 있다. 또한 Lee and Choi(2006)에 따르면, 일상생활 과보호는 아동의 공격성, 위축, 유능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려는 태도가 자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자율성을 저해하며 부모의 뜻대로 따를 것으로 강요당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과 위축과 같은 부정적 행동특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 중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부모의 지지와 아동의 발달과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Jeong, Lee, and Cheon(2010)은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해준다(Lee & Kim, 2005).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공격성과 관련하여 볼 때, Aken et al.(2007)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높으면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oulin and Dishion(2000)에 따르면, 주도적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보다 긍정적 또는 지지적 부모 자녀관계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데 있어 전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신을 비난, 무시, 비하, 부정적 표현, 억압 및 침해적 개입을 한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며 수용해준다고 아동이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남아의 공격성과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

부부는 서로 다른 가족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욕구의 대립,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Kim(1991)에 따르면, 갈등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모순된 목표 하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쟁할 때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욕구의 대립 상태라고 언급하며, 부부갈등이란 부부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Cumming and Davies(2010)에 따르면, 부모간 갈등이란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간 갈등은 부부 생활을 지속함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부부의 서로 다른 욕구, 기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부는 결혼 전에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각기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을 지니며, 독특한 가정환경을 통해 성장하면서 각자 고유한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및 태도를 가지게 되므로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며, 다른 감정으로 반응하거나 상이한 개념을 가질 수 있으므로 부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은 부모 갈등에 대한 부모의 인식보다 아동이 지각이 더 중요하다. Grych et al.(2000)에 의하면,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가 부모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는 분명히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아동의 주관적인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갈등 척도(CPIC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와 같은 자기보고식 평가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CPIC는 부모간 갈등을 빈도, 강도, 해결, 내용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나타내는 척도로 위협, 대처효율성, 지기비난, 부모간 갈등의 원인에 대한 안정성 지각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후에 부모간 갈등의 예측가능성과 부모간 갈등에 아동이 연루될 가능성 두 요인이 포함되었다. 즉, 부모간 갈등은 실제 일어난 현상보다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 중요하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간 갈등이 똑같은 수위로 발생할지라도, 어떤 아이는 위협적이고 두렵고 상황으로 지각하고 느끼며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는 부모간 갈등은 자신에게 심각하게 위험하지 않으며 충분히 좋아질 것이라고 지각하여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 Grych et al.(2000)는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평가가 장기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이 부모간 갈등을 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어 부모 또는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걱정할 수 있고, 부모간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움,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간 갈등에 대해 책임감과 위협을 느끼는 아동들은 내면화 문제들의 다른 증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력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경우, 아동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부모와 자신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Kitzmann and Cohen(2003)은 부모간 갈등에 대해 부모 평가와 학령기 아동의 평가를 비교하였는데, 부모간 갈등의 빈도나 강도, 해결 수준은 다소 일치하였지만, 아동이 갈등과 관련하여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수준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어린 아동들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 슬픔이나 자책과 같은 많은 내면화 문제들은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on, 2008 재인용).

이러한 이처럼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많은 학자들이 부부관계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Cummings & Davies, 2010).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환경 적응에 위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간 갈등은 빈도, 강도, 내용, 해결 정도,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자기 비난 등의 하위 영역에 따라 아동의 적응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i, 2008). Framo(1975)는 아동의 문제 이면에는 부모의 결혼생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부모간 갈등이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 미칠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부모간 갈등은 아동에게 불안, 위협, 긴장,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킴으로써 아동의 환경 적응에 위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ych et al. 2000; Cummings & Davies, 2010; Kim, 2005).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Grych et al, 2000; Cumming & Davies,2010).

특히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Doh, 2001; Cheong & Lee, 2004; Lee & Moon, 2007). 부부간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갈등의 정도가 크며, 부부가 부부갈등 후에 해결이 잘 안되었다고 아동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heong & Lee, 2004). 특히 아동이 부모간 갈등의 빈도나 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아동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Lee & Moon, 2007). 또한 부모간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보고가 있는데, Gerad, Krishnakumar, and Buehler(2006)에 따르면, 부모간 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 중 아동은 같은 성의 부모 편을 드는데 이는 이성 부모와 아동 사이의 유대를 잠재적으로 파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부모간 갈등은 실제 일어난 갈등의 현상보다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아동의 적응에 더 중요하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동 보고로 측정하며, 부모간 갈등이란 아동이 부모의 싸움이나 다툼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지각하는 것에 대한 갈등 빈도와 아동이 부모의 불일치나 화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얼마나 쉽게 해소되는가에 대해 지각하는 부모간 갈등 해결로 나누어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용어 정의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정의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 변인들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남아의 공격성

공격성(aggression)은 기능・형태 차원으로 구분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주도・외현적 공격성,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 손상을 가하려고 위협하는 주도・관계적 공격성,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반응・외현적 공격성,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관계에 대해 손상을 가하려고 위협하는 반응・관계적 공격성으로 정의한다.

2) 남아의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아동이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parental behaviors)은 부정적 측면으로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긍정적 측면으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한다.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란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비난, 무시, 비하, 부정적 표현, 억압 및 침해적 개입 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란 아동은 부모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며 수용해준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부모간 갈등

본 연구에서 부모간 갈등(marital conflict)은 갈등 빈도와 갈등 해결로 구분한다. 갈등 빈도란 아동이 부모의 싸움이나 다툼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지각하는 것이며, 갈등 해결이란 아동이 부모의 불일치나 화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얼마나 쉽게 해소되는가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한 개 초등학교와 경기도 소재 두 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5, 6학년 남아 237명이다. 초등학생 5, 6학년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아동발달상 12세 전후가 공격성이 비교적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Trembley, 2000). 남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Chung & Kim, 2004; Han & Choi, 2004)과 9세 이상의 아동의 자기 보고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견해에 근거하여(Lee & Lee, 2005) 설문지를 남아 자기 보고식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7)

Variables	Category	Frequencies	%
Boy's Birth order	first	77	32.5
	second or less	122	51.5
	an only son	38	16.0
Boy's Religion	has	145	61.2
	has not	86	36.3
	non response	6	2.5
Mother's age	Less than 40	66	27.8
	40~49	146	61.6
	More than 50	9	3.8
	non response	16	6.8
Father's age	Less than 40	19	8.0
	40~49	191	80.6
	More than 50	25	10.5
	non response	2	8
Mo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29	12.2
	More than College /4year University	171	72.2
	non response	37	15.6
Father's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7	7.2
	More than College /4year University	184	77.6
	non response	36	15.5
Mother's Religion	has	130	54.9
	has not	70	29.5
	non response	37	15.6
Father's Religion	has	139	58.6
	has not	91	38.4
	non response	7	3.0
Economic level of perceived by children	upper class	179	75.5
	lower class	56	23.6
	non response	2	0.8

1) 남아의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Marsee, Kimonis, and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 보고형 또래갈등척도를 Han(2008)이 번안한 이후 Lee(2009)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전문가 지도 아래(가족학 전문가 1인, 아동학 전문가 1인) 안면타당도와 문항일치도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문항을 최종 21문항으로 축소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공격성 척도는 기능・형태 차원(주도・외현적, 주도・관계적, 반응・외현적, 반응・관계적)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의 결과 분석을 위해 SPSS 19.0을 통해 리코딩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된 유형의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하위유형별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2>와 같이 .64~.86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 주도・외현적 공격성으로는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건다', 주도・관계적 공격성으로는 '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 반응・외현적 공격성으로는 '나는 놀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 부순다',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문항 중에서는 '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흉을 본다'로 공격성의 모든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한 문항내에서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2) 남아의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Ju and Lee(2007)가 개발한 아동용 탄력성 척도 중 아동의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된(Jang 2008), 통제력을 자기통제력으로 용어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하위유형별 신뢰도(Cronbach's α)는 0.84로 나타났다.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잘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본다', '나는 방해를 받아도 내가 관심을 가진 일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등이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지지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으로 Park(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제작한 Jun(2008)의 양육행동 척도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으로 Huh(2009)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지지 척도(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적 양육 행동으로 변경하여 사용함)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두 개의 요인임을 확인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각 문항은 총 15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해당된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각 하위유형별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신뢰도 0.78,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신뢰도 0.87, 부의 지지적 양육행동 신뢰도 0.76,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신뢰도 0.91로 나타났다.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의 문항으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내가 실수하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핀잔주신다' 등이 있고,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의 문항으로는 '엄마(아빠)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준다', '엄마(아빠)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준다'가 있다.

4) 부모간 갈등

본 연구에서 부모간 갈등은 Kang(2008)의 척도 중 갈등빈도와 갈등 해결을 사용하였다. Crych et al.(1992)에 의하면, 아동의 공격성과 부모간 갈등의 여러 측면 중 갈등 빈도, 갈등 강도, 갈등 해결이 높은 연관을 보인다고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아동은 부모간 갈등 강도 문항에 부실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부모간 갈등 강도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간 갈등 빈도와 갈등 해결 두 가지를 측정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갈등 빈도와 갈등 해결 문항은 각 5문항,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해당된 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 갈등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간 갈등 빈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0 부모간 갈등 해결 신뢰도(Cronbach's α)는 0.77로 나타났다. 갈등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을 본적이 있다',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가 있고, 갈등 해결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가 있다.

3. 조사절차

1) 예비조사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를 위해 2011년 7월 2일~7월 9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서울시 송파구 한 개 초등학교와 경기도 용인시 한 개 초등학교 총 53명의 아동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된 각 문항은 쉽게 수정하고, 특히 아동의 공격성 척도는 몇몇 아동과 교사에 의해 문항수가 많다고 보고되어 SPSS 19.0을 사용해 문항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40문항에서 최종 21문항으로 축소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를 위해 교장과 담당교사를 만나 연구의 목적, 실시 기간,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 진행을 요청하였다. 남아가 질문지에 응답한 일시는 2011년 7월 13일~7월 20일이며, 서울시 송파구 한 개 초등학교와 경기도 용인시 두 개 초등학교 세 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5%이었으며, 이 중 공격성 척도에서 문항 중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은 설문은 제외하고 최종 237명(86%)의 자료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

본 연구는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 빈도, 부모간 갈등 해결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2> 참조). 주도・외현적 공격성(r=-.22, p<.01), 주도・관계적 공격성(r=-.23, p<.01), 반응・외현적 공격성(r=-.21, p<.01), 반응・관계적 공격성(r=-.18, p<.01)과 자기통제력간에 유의한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높아지면 주도・외현적, 주도・관계적, 반응・외현적, 반응・관계적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남아는 자기통제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형태 차원의 네 가지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2) 남아의 공격성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 측면의 양육행동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긍정적 측면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지지를 선정하여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Aggression and Self-control (*N*=237)

Aggression	r
proactive・overt	-.22**
proactive・relational	-.23**
reactive・overt	-.21**
reactive・relational	-.18**

**p < .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Aggression and Restricting・Rejecting Parenting (*N*=237)

Aggression	father's restricting・rejecting	mother's restricting・rejecting
	r	r
proactive・overt	.23**	.32**
proactive・relational	.22**	.21**
reactive・overt	.22**	.28**
reactive・relational	.30**	.37**

**p < .01

우선 부정적 측면의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3> 참조).부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도・외현적 공격성(r=.23, p<.01), 주도・관계적 공격성(r=.22, p<.01), 반응・외현적 공격성(r=.22, p<.01), 반응・관계적 공격성(r=.30, p<.01)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도・외현적 공격성(r=.32, p<.01), 주도・관계적 공격성(r=.21, p<.01), 반응・외현적 공격성(r=.28, p<.01), 반응・관계적 공격성(r=.37, p<.01)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 측면의 양육행동으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4> 참조).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의 모든 하위유형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남아의 공격성과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부모간 갈등은 갈등 빈도와 갈등 해결로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5> 참조).

부모간 갈등 빈도와 주도・외현적 공격성(r=.25, p<.01), 주도・관계적 공격성(r=.27, p<.01), 반응・외현적 공격성(r=.24, p<.01), 반응・관계적 공격성(r=.34, p<.01)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아는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다고 지각하면 주도・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간 갈등 해결을 살펴본 결과, 부모간 갈등 해결과 주도・외현적 공격성(r=.16, p<.05), 주도・관계적 공격성(r=.13, p<.05), 반응・외현적 공격성(r=.17, p<.01), 반응・관계적 공격성(r=.24, p<.01)간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경우 남아는 부모간 갈등의 해결이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4)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 빈도, 부모간 갈등 해결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VIF* 계수는 모두 10이하, *Durbin Watson*값은 1.89~2.03의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였고,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7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거되는 변수는 없었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Aggression and Support Parenting (*N*=237)

Aggression	fathers' support parenting	mothers' support parenting
	r	*r*
proactive・overt	-.10	-.12
proactive・relational	-.04	.01
reactive・overt	-.08	-.04
reactive・relational	-.12	-.10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Boys' Aggression and Marital Conflict (*N*=237)

Aggression	frequency	resolution
	r	*r*
proactive・overt	.25**	.16*
proactive・relational	.27**	.13*
reactive・overt	.24**	.17**
reactive・relational	.34**	.24**

*p < .05, **p < .01

Table 6. The Relative Influence of Variables on Boys' Aggression on the Functions and Forms (*N*=237)

predict variables	proactive · overt		proactive · relational		reactive · overt		reactive · relational	
	B	*β*	*B*	*β*	*B*	*β*	*B*	*β*
boy's self control	-.11	-.20**	-.14	-.27***	-.15	-.21**	-.10	-.15*
father's restricting · rejecting	.01	.01	.08	.14	-.02	-.03	.02	.03
mother's restricting · rejecting	.15	.28**	.05	.10	.23	.32**	.21	.33**
father's support parenting	.05	.10	.04	.09	-.02	-.04	.03	.05
mother's support parenting	.02	.04	.08	.17	.16	.24*	.09	.14
marital conflict (frequency)	.08	.14	.11	.22**	.07	.10	.12	.19*
marital conflict (resolution)	.02	.04	-.01	-.03	.05	.07	.06	.10
constant	.88		.84		.84		.55	
R^2	.16		.17		.16		.23	
adjusted R^2	.13		.14		.13		.20	
F	6.21***		6.68***		6.19***		9.63***	
Durbin Watson	1.89		2.01		2.03		2.02	

*p < .05, **p < .01, ***p < .001

본 연구에서 남아의 공격성은 기능 · 형태 차원으로 주도 · 외현적, 주도 · 관계적, 반응 · 외현적, 반응 ·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Table 6> 참조).

첫째, 남아의 주도 · 외현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β=.28, p<.01)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통제력(β=-.20, p<.01)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이다. 즉, 남아의 주도 · 외현적 공격성은 모가 제재 · 거부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아의 주도 · 관계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통제력(β=-.27, p<.001)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간 갈등 빈도(β=.22, p<.01) 변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14%이다. 즉, 남아의 주도 ·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다고 지각할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아의 반응 · 외현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β=.32, p<.01)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β=.24, p<.05), 자기통제력(β=-.21, p<.01)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13%이다. 즉, 남아의 반응 ·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모의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다고 지각하며, 모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남아의 반응 · 관계적 공격성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의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β=.33, p<.01)으로 나타났고, 부모간 갈등 빈도(β=.19, p<.05), 자기통제력(β=-.15, p<.05)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0%이다. 즉, 남아의 반응 · 관계적 공격성은 남아가 모의 제재 ·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다고 지각할수록,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격성을 기능 · 형태 차원의 네 가지 하위유형으로 범주화하여 공격성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의 예방적 개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 기능 · 형태 차원은 주도 · 외현적 공격성, 주도 · 관계적 공격성, 반응 · 외현적 공격성, 반응 · 관계적 공격성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며, 결론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 남아의 공격성을 기능 · 형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격성 하위유형에 따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연구 모형은 비교적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1) 남아의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간의 관계

남아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낮으면 기능・형태 차원의 네 가지 공격성의 하위유형은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론은 남아들이 자기통제력을 갖춘 경우 공격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라 하였으며(Lee & Lee, 2007), 공격성, 우울증, 폭력, 자살 등 폭력 행동 또는 위험 행동 등의 심리 사회적 문제의 주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Shaffer, 2000)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결론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남아는 부모가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기능・형태 차원의 모든 공격성 하위유형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 및 엄격한 태도를 많이 받고 자란 경우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수의 연구를 지지한다(Kim & Doh, 2001; Park, 2002, Lee & Moon, 2007). 반면, 남아는 부모가 지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도 공격성과 연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을 낮출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론이다. 종합하여 볼 때, 남아의 공격성은 긍정적 측면의 지지적 양육행동보다 부정적 측면인 제재・거부적 양육행동과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아의 경우 갈등 해결보다 갈등 빈도가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모든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남아의 경우 부모간 갈등은 기능・형태 차원의 하위유형 공격성을 모두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빈도와 해결 모두 반응・관계적 공격성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응・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분노 특성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rsee & Frick, 2007). 이것은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보다 우울, 불안, 분노 및 정서 조절 등 내현화 문제와 관련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시켜 볼 때, 부모간 갈등은 남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 우울 등으로 이어지게 하며,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부모간 갈등 해결은 목표를 갖고 공격행동을 통해 긍정적 보상을 기대하며 타인에게 싸움을 먼저 걸거나 괴롭히기, 놀리기 등의 공격 행동을 하게 되므로 가출, 비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도・외현적 공격성과만 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고 부부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래지속 되는 남아의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부모간 갈등 해결보다 더 높은 관련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간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는 공격성을 기능・형태 차원으로 분류하여 네 가지 하위유형에 대한 아동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 빈도, 부모간 갈등 해결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능・형태 차원은 주도・외현적 공격성, 주도・관계적 공격성, 반응・외현적 공격성, 반응・관계적 공격성을 의미한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설명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공격성에 대해 유의하게 나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아에게 부모간 갈등 빈도는 반응・관계적, 주도・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간 갈등 빈도는 남아의 관계적 공격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은 부모간의 관계 맺는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며, 부모간 갈등을 자주 목격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아동은 친구를 위협하거나, 흉을 보거나,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거나,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관계를 위협하는 공격 행위를 보이기 쉽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Nelson and Crick(2002)에 따르면,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이 외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보다 친밀한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아동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동은 부모간 갈등을 자주 목격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더 강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보다 불안과 연관이 높은 공격성의 하위유형으로(Marsee, Weems, & Taylor, 2008), 부모간에 잦은 갈등은 남아들의 심리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아가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공격성 여러 하위유형 중 관계적 공격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아의 경우 부모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것을 자주 목격하거나, 부모가 서로 잔소리와 불평을 하는 등 부모간의 갈등에 자주 노출될수록 관계를 손상하거나 위협하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이 연구 결과 부모간 갈등 하위유형 중 갈등 해결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간의 불일치나 화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얼마나 쉽게 해소되는지의 여부는 공격성의 모든 차원에서 영향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남아의 공격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부부 싸움이나 다툼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

는지에 대한 갈등 빈도가 부모들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얼마나 쉽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갈등 해결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아의 부모들은 공격적이지 않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간 갈등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은 가족의 분위기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간 갈등을 아동이 목격하지 못하도록 외부로 나가거나, 아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둘째, 남아의 자기통제력은 기능・형태 차원 네 가지 모든 하위유형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도・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남아의 공격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자기통제력을 갖추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주도적 공격성은 파괴적 교실 행동, 싸움의 시작, 비행과 관련되어 있고(Dodge & Coie, 1987; Vitaro et al., 2002), 주도・관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들은 공격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높은 연관이 있다(Marsee & Frick, 2007). 즉, 남아들은 자신의 공격 행동에 대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공격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남아들이 타인과 의견이 다를 때 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통제력을 갖추는 것은 공격성의 표출을 낮추는데 중요한 개인 내적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아들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은 여러 공격성의 하위유형 중에서도 주도・관계적인 공격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을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맥락이다(Hah, 2003; Jun, 2007; Jang, 2008, Thomas et al., 2011). 즉, 남아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거나 유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공격 행동을 하는 것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개인 내적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이를 볼 때 부모와 교사들은 아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주도・관계적 공격성은 사회 부적응과 관계가 높은 공격성의 하위유형으로(Marsee & Frick, 2007), 남아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부모간 갈등 빈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남아의 경우 반응・관계적 공격성보다 주도・관계적 공격성에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더 높다.

셋째,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오히려 남아의 반응・외현적 공격성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남아에게 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오히려 아동이 공격 행동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는 모가 자신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며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자신을 잘 이해해준다고 지각할수록, 타인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놀리거나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외현적 공격 행동을 더 쉽게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반응・외현적 공격성, 즉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공격 행위를 증가시킨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남아들이 모의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경우, 위협 상황에서 보다 자신감 있게 상대방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공격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남아들에게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반응적 공격성 중에서도 반응・관계적 공격성의 영향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으며, 반응・외현적 공격성을 높이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남아들이 공격 행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어머니들의 양육 방식을 엿볼 수 있는데 남아에게 친구가 때리거나 위협할 때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친구를 때려주도록 양육을 받은 경우, 아동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모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믿음이 더해져 공격행동이 나타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이기적인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 친구가 위협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갈등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이들이 괴롭힐 때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부모, 또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공격 행위의 악순환을 막고 아동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맺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남아에게 모의 제재・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주도・관계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은 여러 하위유형 중 특히 반응・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Dodge(1991)는 부모의 거친 훈육으로 인해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세계를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반응적 공격성의 특성인 적대적 귀인 편파(hostile attribution bias)와 연관되어 있다. 반응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쉽고, 또래가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Hubbard et al, 2001), 즉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이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해석하는 관점을 왜곡시키게 되고 결론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인지적 왜곡의 확률을 높여 반응적 공격성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모의 제재・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여

러 하위유형 중 특히 남아의 반응・관계적 공격성에게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은 자주 울거나 짜증을 내는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Vitaro et al., 2002), 반응적 공격 성향을 지닌 아동은 정서적 자극에 대해 낮은 반응 조절 수준을 보인다고 나타났다(Marsee & Frick, 2007; Xu & Zhang, 2008). 또한 우울, 불안, 고독감 및 사회적 불만족 등 내재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Xu & Zhang, 2008).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남아는 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비난하고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지각할 경우 우울, 불안, 짜증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 자신의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 쉽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이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남아의 기능・형태 차원 네 가지 모든 공격성의 하위유형에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격성 하위유형에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아에게 모의 부정적 표현, 비난, 억압, 간섭 등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은 주도・외현적, 반응・외현적, 반응・관계적 공격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고, 남아의 주도・관계적 공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자신의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은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아의 경우 부모간 갈등이 빈번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여러 하위유형 중 관계적 공격성과 깊은 연관이 있고,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보다 부모가 얼마나 자주 싸우고 다투는지가 남아의 공격성을 높이는데 더 중요한 변인이다. 그리고 예측과 반대되는 결론으로 남아가 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반응・외현적 공격성은 높아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공격성을 남아 자기 보고로 측정한 점이다. 공격성을 지닌 남아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해 좀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부모 및 교사 보고 등의 측정을 병행하여 자기보고로 인한 오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로는 국내 기존의 남아의 공격성 하위유형을 기능 차원 또는 형태 차원 각각 분리하여 살펴본 것과 달리 기능 차원과 형태 차원을 하나의 차원으로 합친 기능・형태 차원을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미흡한 기능・형태 차원 공격성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의의로는 공격성 하위유형별로 남아의 공격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제언은 국내 미흡한 기능・형태 차원의 공격성에 대한 종단 연구의 진행은 아동의 공격성 발달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니캇(Donald Woods Winnicott)은 공격적 행위를 운동성, 활동성으로 표현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였고 아동에게 따뜻하고 필요한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창조적 변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는데, 현재까지 많은 공격성 연구자들은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왔으나 공격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주도적 공격성은 리더쉽, 유머 감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고(Poulin & Boivin, 2000), 주도적 공격성을 지닌 아동은 자원 통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Xu & Zhang, 2008). 이를 토대로 한국 남아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되기 위한 방안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남아에게 모의 양육행동이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남아에게는 부보다 모의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제재・거부적 양육행동을 부정적 표현, 비하하기, 비난하기, 간섭하기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어떠한 특성이 공격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은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실천적 제언은 남아의 자기통제력을 향상프로그램은 여러 하위유형 중 주도・관계적 공격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싸움, 파괴적인 교실 행동, 비행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의 기회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성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은 남아의 공격성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REFERENCE

Cheong, E. & Lee, M.(2004). Relationships of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aggression, and bullies/victims of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115-126.

Chung, H.(2011).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bullying and problem behavior in childhood-focused

on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Gyeonggi-do.

Chung, M. & Kim, M.(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1-27.

Do, K. & Lee, J.(201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self-control, and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3),* 59-69.

Ha, Y.(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4),* 29-40.

Han, Y.(2008).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variables to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do.

Han, Y. & Choi, N.(2004).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early adolescents' attributional styl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3),* 363-384.

Heo, S.(2008). *An analysis of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ty, Seoul.

Jang, H.(2008).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gender role identity, self-control and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ty, Seoul.

Jeong, Lee, & Cheon.(2010). The effect of stress related with parents and parent support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in pover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1,* 63-85.

Ju, S.(2008).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funct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Jun, J.(2008).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negative behaviors, children's attachment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Jun, S.(2007). The Effect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Children's Behavioral Autonomy and Self Control on Children's Problems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69-179.

Kang, N.(2008). The influence on a child's self-esteem of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ang, S.(1997).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for anger control and its vali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G.(1991).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im, J.(2005).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3(5),* 683-690.

Kim, J.(2006).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daily hassles, emotional regulation on children's agg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im, K. & Kim, K.(2005).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withdrawal and aggression: causal effects of rejection, victimization, and negative representation by parents and pe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247-266.

Kim, M. & Doh, H.(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2),* 149-166.

Kim, S. & Kim, K.(2001).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causal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1),* 19-34.

Lee, H.(2009). *The relations of cognitive and emotional variables to subtypes of agg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do.

Lee, J.(2004).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Lee, J.(2010). The effect of tem parament and parenting on children'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4),* 117-125.

Lee, J. & Moon, H.(2007).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5(6),* 77-88.

Lee, J. & Lee, Y.(200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K-MSL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21-137.

Lee, J. & Lee, Y.(2007).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33-58.

Lee, K.(2001).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s self-control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children's refelction, self-concept and mother's paren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9(2),* 97-110.

Lee, K. & Kim, S.(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14.

Lee, S. & Lee, S.(2007). The effects of stress and self-regulation for predicting elementary student's aggression-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2,* 1-22.

Lee, S. & Choi, J.(2006). Maternal overprotective behavior and their children's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Korean Journal Community Living Science, 17(2),* 69-79.

Lim, H.(2000).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ty. Seoul.

Park, H. & Park, S.(2002).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son's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87-98.

Park, S.(2011).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empath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in late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eo, M.(2011). A meta-analysis of the gender differences and variables related to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2),* 143-162.

Son, M.(2008).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parentification in graduat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Yoon, J.(2007). The effect of stress coping group counseling program on upp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 Dekovic, M., & Denissen, J.(2007). Parental personality, parenting and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1,* 993-1015.

Archer, J. & Coyne, S. M.(2005). An integrated review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Personal Social Psychology, 9,* 212-230.

Avakame, E. F.(1998).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elf-control, and conjugal viol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physic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Violence and Victims*, *13,* 301-316.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erkowitz. L, & Donnerstein. E.(1981). Victim reactions in aggressive erotic films as a factor in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710-724.

Coie, J. D., & Koeppl, G. K.(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rejected children. In J. D. Coie & S. R. Asher(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 993-1002.

Crick, N. R., & Ostrov, J. M., and Werner, N. E.,(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Children'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1-142.

Cummings, E. M., and Davies, P. T.(201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An emotional security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Davidson, R. J., Putnam, K. M., & Larson, C. L.(2000). Dysfunction in the neural circuitry of emotion regulation - A possible prelude to violence. *Science, 289,* 591-594.

Deacon, R. & Firebaugh, F.(1988). *Family Resource Mana-*

gement, Boston: Allyn and Bacon.

Denson, T. F., Capper, M. M., Oaten, M., Friese, M., Schofield, T. P.(2011). Self-control training decreases aggression in reponse to provocation in aggressive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252-256.

Dodge, K.A., and Coie, J. D.(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Eron, L.(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Ferguson, C.J.(2009). Natural Born Killers: The Genetic Origins of Extreme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5)*, 286-294.

Fite, P. J., Stauffacher, K., Ostrov J. M. & Colder, C. R.(2008).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Little et al.'s(2003)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mea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 238-242.

Framo, D. L.(1975). Personal reflections of a therapis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1,* 15-28.

Frodi, A., Macaulay, J., and Thome, P.(1977). Are women always less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Gerad, J. M., Krishnakumar, A., & Buehler, C.(200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youth maladjust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pillove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7,* 951-975.

Grafman, J., Schwab, K., Warden, D., Pridgen, A., Brown, H.R., Salazar, A.M.,(1996). Frontal lobe injuries, violence, and aggression: A report of the vietnam head injury study. *Neurology, 46,* 1231-1238.

Grych, J. H., and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Grych, J. H.,Fincham, F. D., Jouriles, E. N., & McDonald, R.(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 1648-1661.

Hazelwood, R. R., and Warren, J. I.(2000). The sexually violent offender : Impulsive or ritualistic?.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5,* 267-279.

Kazdin, A. E.(2000). Encyclopedia of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y, 50,* 672-689.

Kistner. J., Allan. C., Dunkel, S., Hardee. C. & Lopez, C.(2010). Sex differenc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the late elementary school years. *Aggressive Behavior*, *36,* 282-291.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Stein, L. C., & Gregory, K.(2002).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N.Y..

Little, T. D., Jones, S. M., Henrich, C. C., & Hawley, P. H.(2003). Disentangling the "whys" from the "whats" of aggressive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22-133.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Marsee, M. A., Barry, C. T., Childs, K. K., Frick, P. J., Kimonis, E. R., Munoz, L. C., & Aucoin, K. J.(2011). Assessing the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using self-report : Factor structure and invariance of the peer conflict scale in youths.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792-804.

Marsee, M. A., & Frick, P. J.(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69-981.

Marsee, M. A., Weems, C. F., & Taylor, L. K.(2008).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154-168.

Ostrov, J. M.(2010).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1(6),* 1670-1677.

Ostrov, J. M., and Crick, N. R.,(2007).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chool Psychology Review*, *36,* 22-43.

Ostrov, J. M., and Houston, R. J.(2008). The utility of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147-1158.

Poulin, F., & Dishion, T. J.(2000). The peer and family experiences of proactively and reactively aggressive pre-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Poulin, F., & Boivin, M.(2000). The role of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oy'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33-240.

Quay, H. C.(1986). *Classification. In H. C. Quay & J. S. Werry*(*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3rd ed., pp.1-42).* N.Y..

Schwartz, D., Dodge, K.A., Coie, J.D., Hubbard, J.A., Cillessen, A.H.N., Lemerise, E.A., and Bateman, H.(1998). Social-cognitive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subtypes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431-440.

Seah, S. L., & Ang, R. P.(2008).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sian adolescents: relations to narcissism, anxiety, schizotypal traits, and peer relations. *Aggressive Behavior, 34(5),* 553-562.

Seah, S. L. & Ang, R. P.(2008). Differential Correlat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Asian Adolescents: Relations to Narcissism, Anxiety, Schizotypal Traits, and Peer Relations. *Aggressive Behavior, 34,* 553-562.

Shaffer, D.(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olopment.* Wadsworth.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4.

Thomas, F. D., Miriam, M. C., Megan, O, Malte, F. & Timothy, P. S.(2011). Self-control training decreases aggression in response to provocation in aggressive individu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252-256.

Tremblay, R. E.(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Underwood, M. K.(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Y.. Guilford Press.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ve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495-505.

Vitiello, B., & Stoff, D. M.(1997). Subtypes of aggression and their relevance to child psychiat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a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307-315.

Xu, Y., & Zhang, Z.(2008). Distinguishing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Chineses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39-552.

세계일보. www.segye.com.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접 수 일 : 2012년 01월 16일
□ 심 사 일 : 2012년 01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3월 21일